

가을 극장가 로맨스·판타지 몰려온다

‘브리짓 존슨의 베이비’ ‘설리:허드슨강의 기적’ 등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영화는 쉬지 않는다. 극장가는 가을 맞이 영화로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여름 성수기를 장악한 한국 영화보다 물 건너온 로맨스·판타지 작품이 잇따라 개봉한다.

‘로맨틱 코미디의 교과서’로 불리는 ‘브리짓 존슨’ 시리즈가 돌아왔고, 두 거장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톰 행크스가 합작한 ‘설리:허드슨강의 기적’이 관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판타지의 대가 팀 버튼 감독이 내놓은 또 한 편의 판타지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도 있다.

한국 영화도 빠질수 없다. 스타 배우 5명이 한자리에 모인 ‘아수라’가 ‘밀정’을 추격한다. 가을 감성을 안고, 28일 동시에 개봉하는 영화를 소개한다.

◇그때 그 브리짓이 돌아왔다... ‘브리짓 존슨의 베이비’

한국에 ‘김삼순’이 있었다면, 영국에는 ‘브리짓 존슨’이 있었다. 2001년 ‘브리짓 존슨의 일기’, 2004년 ‘브리짓 존슨의 일기-열정과 애정’으로 한국 여성 관객의 지지를 받은 여자 ‘브리짓 존슨’이 12년 만에 돌아왔다. 이 작품의 성공을 함께 했던 러네이 쥘위거와 클린 퍼스의 그리고 사툰 머피가 이어 감독 모두 그대로다.

‘브리짓 존슨의 베이비’는 브리짓 존슨이 자신을 사랑하는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용을 다뤘던 전작들과 큰 틀에서

유사한 이야기를 한다. 단 이번 작품은 존슨이 두 남자 중 한 명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일이 커진다.

러네이 쥘위거와 클린 퍼스의 나이 든 모습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들의 완숙해진 연기를 보는 재미가 있다. 휴 그랜트를 대신해 투입된 패트릭 덴프시 또한 매력적이다.

◇거장들의 만남... ‘설리:허드슨 강 의 기적’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들고 톰 행크스가 연기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 두 거장의 만남만으로도 이 작품은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영화는 지난 2009년 US 에어웨이 소속 항공기가 기체에 이상이 생기자 뉴욕 동부 허드슨강에 긴급 착륙. 탑승자 155명 전원이 생존한 실화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언뜻 보면 ‘설리:허드슨 강 의 기적’은 ‘감동의 재난영화’로 보이지만, 노장 감독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다. 기적적인 생존 후 이 사건의 진실을 두고 벌어지는 조종사 ‘설리’(톰 행크스)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스트우드와 톰 행크스가 이 작품을 통해 어떤 감동을 만들어낼지 지켜봐야 한다.

◇팀 버튼의 환상 특급... ‘미스 페레그린 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이 작품은 ‘가위손’(1991) ‘빅피쉬’(2004) ‘찰리와 초콜릿 공장’(2005)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2010) 등 판타지물에서 특별한 재능을 선보이며 세계 관객을 홀린 팀 버튼 감독의 신작이다.

◇배우 종합선물세트... ‘아수라’



2011년 ‘브리짓 존슨의 일기’ 2004년 ‘브리짓 존슨의 일기-열정과 애정’으로 한국 여성 관객의 지지를 받은 여자 ‘브리짓 존슨’이 12년 만에 돌아왔다.

정우성·황정민·곽도원·주지훈·정만식, 이 배우들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이 ‘아수라’다. 연출을 맡은 김성수 감독은 지난 1일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아수라’에 대해 “배우 보는 재미, 연기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 그대로다. 혼자서 한 작품을 책임질 수 있는 주연급 배우들이 한 데 모인다는 건 그

자체로 이 영화의 최대 강점이다. 비트(1997) ‘태양은 없다’(1999)로 방황하는 청춘의 초상을 그리는 데 성공한 김성수 감독과 이 작품들을 통해 한국 영화계 아이콘이 된 배우 정우성이 ‘무사’(2001) 이후 15년 만에 다시 만난 작품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김민근기자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발전한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

6년차 아이돌 ‘인피니트’ 여섯 번째 정규앨범 ‘인피니트 온리’

2010년에 데뷔해 벌써 6년차 중견 아이돌 그룹이 됐고 다섯 장의 미니앨범과 두 장의 정규앨범을 내 놓았다. 대부분의 타이틀곡으로 음원차트나 음악방송에서 1위도 했다.

수명이 짧은 아이돌 그룹 특성 상 보여줄 만큼 보여줬고, 할 만큼 한 시기다.

19일 1년2개월 만에 여섯 번째 정규앨범 ‘인피니트 온리(INFINITE ONLY)’를 발표한 그룹 ‘인피니트’ 앞에 놓인 고민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하면 지난 앨범보다 더 멋진 모습,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성규)다.

그동안의 인피니트 활동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몇 가지로 나뉜다.

각을 딱딱 맞춘 군무를 표현하는 길군무물, 매년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노래하는 집착물, 데뷔 초 인피니트의 색을 완성한 작곡팀 스위트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알파벳으로까지 이어

지는 특유의 복고풍 등이다.

6년차 인피니트가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인피니트 온리’는 말 그대로 총 망라다.

칼군무에 애절한, 강렬한 일렉트로 사운드에도 돋보이는 멜로디 라인에서 풍기는 복고 내용 등 인피니트 음악의 요소가 모두 모였다.

오직 인피니트만이 할 수 있는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는 당찬 마음은 타이틀 ‘인피니트 온리’로 표현했다. 앞으로 인피니트가 가야할 길을 가르고 제시할 기점에 있는 앨범이기도 하다.

타이틀 곡 ‘태풍’ 역시 인피니트풍의 노래다. ‘백(Bark)’부터 ‘데스티니(Destiny)’ ‘배드(Bad)’를 함께 한 작곡팀 알파벳과 또 한 번 호흡을 맞췄다.

초반부터 강렬하게 몰아치는 드라마틱한 구성이 돋보이는 노래다.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기억을 고요한 태풍의 눈과 이



1년2개월 만에 여섯 번째 정규앨범 ‘인피니트 온리(INFINITE ONLY)’를 발표한 그룹 ‘인피니트’를 둘러싼 날개에 빔에어 표현했다. 이 외에도 앨범에는 ‘태풍’의 분위기를 고조하는 인트로 ‘이터니티(Eternity)’, 일렉트로 사운드가 돋보이는 ‘에어(AIR)’, 멤버 호야가 작곡에 참여한 ‘월 데이(Moon Day)’,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주력으로 하는 ‘트루 러브(True Love)’, 팬들에게 전하는 마음을 담은 ‘고마워’ 등 모두 일곱 곡이 실렸다. /뉴시스

MLB 김현수, 침묵개고 2경기만에 안타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가 2경기만에 침묵을 깨고 안타를 만들어냈다.

김현수는 20일(한국시간) 미국 오리올 파크 앳 캠든 야드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2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김현수의 시즌 타율은 0.307에서 0.306(281타수 88안타)으로 소폭 하락했다.

김현수의 안타는 세번째 타석에서 나왔다. 6회 1사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릭 포셀로의 88.5 마일(약 142km)짜리 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안타를 기록했다.

이날 김현수는 안타와 함께 호수버까지 선보이며 홈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7회 2사 1·2루 위기에서 무키 베츠의 잘맞은 타구를 끝까지 따라가 잡아낸 뒤 펜스에 강하게 부딪혔다. 덕아웃에서도 호수버를 펼치고 돌아온 김현수에게 환호를 건넸다.

하지만 볼티모어는 포셀로의 호투에 타선이 막히며 2-5로 패했다. 볼티모어의 시즌 성적은 82승 68패가 됐다. 지구 1위 보스턴(86승 64패)과 격차는 4경기가 됐다.

보스턴 선발 포셀로는 9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며 완투승을 거뒀고 시즌 21승째(4패)를 챙겼다. /김민근기자

축구 발롱도르 시상 새로운 선정 방식 발표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Ballon d'or)가 올해부터 선정 방식을 바꾼다.

발롱도르를 시상하는 프랑스 축구 전문지 ‘프랑스 풋볼’은 20일(한국시간) 새로운 선정 방식을 발표했다.

종전 각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기자단 투표로 진행하던 것을 기자단 투표로만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올해부터 국제축구연맹(FIFA)과 ‘프랑스 풋볼’의 계약이 끝났기 때문이다.

또 후보의 수를 2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최종 후보자 3명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최종 후보자에게 지나치게 쏠리는 관심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김민근기자

1956년 창설된 발롱도르는 원래 유럽 국가의 클럽에서 활약하는 유럽 국적 선수들에게만 수상을 한정했지만 1995년부터 국적 제한을 폐지했다. 이어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후보를 전 세계로 확대했다. /김민근기자

아시아 프로농구 챔피언십 다음달 1~3일 개최

아시아 최고 센터로 불리는 이란의 하메드 하디다(31)가 한국에 온다.

KBL은 한국과 중국, 뉴질랜드의 정상 팀들이 참가하는 2016 아시아 프로농구 챔피언십이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KBL을 대표해서 KCC와 울산 모비스가 출전한다. KCC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 모비스는 2위 팀이다.

지난 시즌 중국 리그(CBA) 플레이오프 우승팀 시추안 블루 웨일스(중국)와 뉴질랜드 리그(NBL) 플레이오프 우승팀 웰링턴 제인츠도 참가한다.

특히 시추안은 하디다의 소속팀으로 눈길을 끈다. 미국프로농구(NBA) 출신 하디다는 218cm의 높이를 자랑하는 아시아 최고 빅맨이다. 19일 끝난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막강한 높이를 자랑하며 이란의 우승을 이끌었다. 한국과의 결승에선 20점 23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활약을 펼쳤다.

4개 팀은 풀리그로 순위를 정한다.

한편 대회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2시30분에는 2016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지명 순위 추첨식을 갖는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